9월 18일
세계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

2022년
기후정의주일
자료집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2-765-1136
-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02-711-8905
- www.greenchrist.org

목차

인사말 — 4

2022 기후정의주일 예식서 — 5

- 설교문 1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느헤미야 5:1-13) — 8
- 설교문 2 **"맛 좋은 과일"** (호세아 4:3 / 마가복음 1:13) — 12

주간기도문

- **첫째 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 16
- **둘째 날** | 기후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 17
- **셋째 날**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8
- **넷째 날** |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 19
- **다섯째 날** | 정의로운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 20
- **여섯째 날** | 기후재난 속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21
- **일곱째 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 22

함께 부를 찬양 "하늘을 나는 새" — 23

9월 기후정의행동 "기후정의행진" 포스터 — 24

인사말

안홍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산업화 이후 인간은 자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삼고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탈탈 털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할 것 마냥 추앙받던 물질문명은 오히려 끔찍한 기후재앙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의 피해는 고스란히 물질문명의 그늘 아래에서 희생당해 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무엇보다도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의 타지 않는 가시떨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몰린 모세 자신이자 4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노예로 살아온 히브리 민족이었으며, 또한 불이 훅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가시떨기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의 샘물로 먹여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40년의 환경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겪어야 할 기후 위기의 삶을 예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특별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 이방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여 선포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기후 위기의 광야를 벗어나는 길 위에서 우리 시대의 기후 약자들을 품으며 탄소중립 2050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조만간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이 무기화 되면 당장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이를 통해 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폭염, 강추위, 폭설,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이 겪을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직업을 잃게 될 이들이 겪게 될 고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게 될 심각한 재앙을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과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 기후정의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며 걸어온 광야에서의 40년을 예표로 삼아 한국교회도 기후정의를 이루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 기후정의주일 예식서

환영 및 인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들과 고통 받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위로를 얻고, 정의로 말미암은 새로운 희망을 싹틔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로 거듭나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독문 (시편 85편)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찬양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탄식과 회개의 기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교만과 탐욕의 신을 신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어느 곳 하나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공간을 우리의 욕망대로 짓밟고 다녔습니다. 숲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른 생명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기후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가뭄과 홍수가 식량 위기를 초래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탐욕의 신을 벗어던지고 부끄러운 자신들을 깨달아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느헤미야 5:1-13)

"맛 좋은 과일" (호세아 4:3 / 마가복음 1:13)

찬양

찬송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앙 고백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며,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고통 받으시는
고통 받는 이, 가난한 이, 영양실조에 걸린 이, 기후난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려고 오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며, 오늘 우리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모든 파괴적인 세력을 없애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나눔과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평화와 사랑, 용서와 은혜, 그리고 정의로 서로 인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돌봄의 본성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창조주의 평화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조주의 평화가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나누도록 초대받았으며. 당신이 모이는 땅과 이 공동의 집을 공유하는 피조물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경이롭게 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모든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후정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느헤미야 5:1-13)

이원영 목사
예장 총회농촌선교센터 원장

기후정의주일을 제정한 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1년 제69회기 4차 실행위원회의를 통해 '세계기후행동의 날(매년 9월 24일)'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주일'을 제정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전국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기후정의주일을 제정한 작년(2021년)에 교회협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신앙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10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인식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을 선포하고, 지난 5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2021. 5. 20.)을 가졌고, 올해 8월 24일에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기후정의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처할 재정이나 기술이 없는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이며, 기후변화와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대기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기체들의 배출량이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촉발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기후 회복력을 떨어뜨려 이전과 다른 기후와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제국적 팽창주의로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경제적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기후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약소국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 기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로 인해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때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라는 상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원인이 된 주체들이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약자를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운동과 이념입니다.

기후변화의 심리학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880년대부터 지구의 온도를 기록하고 기후변화 데이터를 추적해 온 인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산업 활동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1992년 UN이 주관하여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4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제정해 환경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빨라지는 기후변화의 속도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운동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지 마셜의 '기후변화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태풍도 시간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 후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날씨가 정말 화창해졌다며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불확실한 위협과 불안에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날씨의 변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난을 기후위기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지 몰라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가 임박한 위기라는 사실과 엄청난 재앙이라는 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난 받는 이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환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농어촌의 희생을 먹고 성장하는 도시는 정의로운가?

기후정의의 시선을 국내로 돌려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 즉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곳은 농어촌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일 것입니다. 2,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1차 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구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1차 산업의 가격변동이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2, 3차 산업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폭보다 농수산물의 가격 억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농사를 위한 비료, 농기계 사용을 위한 연료, 그리고 각종 농자재 가격은 오르지만 최종 농산물 가격은 몇 십 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해도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 농사지을수록 빚만 늘어간다고 하는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수도권을 향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고압전선은 산과 들을 가로지릅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기 위해 세워진 송전탑으로 인해 농촌의 논밭과 산은 시멘트로 메워지고 훼손됩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의 매연과 석탄의 분진은 농촌의 산과 들을 더럽힙니다. 농촌은 밭을 갈아먹고 살지만 도시는 농부의 등을 갈아 먹고 사는 꼴입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농사로 잔뼈가 굵은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대는 농어촌을 떠나니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촌에 있으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없어서입니다. 또 도시에 집중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사회적 자본 때문입니다. 도시는 농촌인구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성장하고 농촌은 도시의 인구흡수로 인해 소멸합니다. 농어촌의 희생을 먹고 성장하는 도시는 기후정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폭우로 인한 반지하 일가족의 죽음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에너지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보다 적게 사용하는 이들이 기후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같은 사고로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경제적 약자입니다.

이번 폭우는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찬 공기를 극지방에 가두고 있던 제트기류가 무너지면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만난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원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불평등이란 관점에서 기후약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후정의는 남의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당면한 문제이며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속죄 제목입니다.

기후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빈손이 될지로다

기후위기는 유대민족의 무너진 성벽과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후정의라는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민족을 격려하며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느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그들이 같은 유대민족이며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는 귀족들과 관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빚을 탕감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두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정책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천을 기초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무너진 성벽은 기후정의를 실천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 기후정의에 앞장섭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맛 좋은 과일"

(호세아 4:3 / 마가복음 1:13)

윤태현 목사
제주 한울교회 | 기장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집행위원

사라진 정의

이제는 사라진 한 가지 정의(正義)와 공평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실현되던 정의인데, 누구라도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운(?)이 좋거나, 공유되는 노하우를 통해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불복으로, 때로는 여러 감별법으로 때에 따라 같은 돈을 내고 보다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설령 이번에 구입한 과일이 맛이 없더라도 아쉽지만 〈다음 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나 아닌 누군가는 맛있는 과일을 먹는 연대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출하단계에서 당도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비파괴 당도검사'를 실현 시켰고, 컨베이어를 지나며 레이저로 찍어낸 당도 높은 과일은 선별되어 따로 모아지고 비싼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매우 당연히 구매력이 있는 부자 동네 혹은 백화점으로 따로 진열되어 판매 됩니다. 여전히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과일의 향을 맡고, 두드리고, 꼭지를 살피는 등의 모습을 왕왕 보게 되지만 이미 한번 걸러진 그저 그런 과일을 두고 옛 맛을 추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누구라도 먹을 수 있었던 '맛 좋은' 과일은 이제 더 이상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햇빛과 비와 땅의 기운이 합하여 만들어진 맛좋은 과일을 보다 많은 돈을 지불 할 수 있는 이들만 독점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력 있는 부자들의 맛 좋은 과일을 위해, 땅과 바다는 더욱 황폐해 지고 나무들은 괴롭힘(*많은 종류의 과일은 당도를 올리기 위해 나무에 수분 스트레스를 주는 농법을 주로 사용한다.)을 당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먹지 못하지만 그 대가는 함께 치루며, 매번 운이 억세게 없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연대는 사라졌고, '을'끼리의 경쟁과 탓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돌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을 때 해방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마치 자랑하듯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신명기 11:10-11)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통한 노동해방과 정의를 함께 선언하고 계신데, 이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노동 중 하나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일 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노예들이 힘들게 지고 나른 물로 건조한 이집트에서 채소와 과일을 길렀을 것이고, 필시 귀한 채소와 과일은 지배자들과 심지어는 지배자들의 낙타가 독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된 새 세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땅은 비가 절로 내리고 비옥한 땅이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내어 누구라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신11:14-15)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정의와 공평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경고대로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레위기 18:28) 이때를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3절의 말씀은 안타깝게 폭로합니다.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호세아 4:3)

진실과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졌고(호세아 4:1), 값없는 은총을 특정 집단이 다시 독점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2년은 어떻습니까? 온 땅이 바이러스에 탄식하고 주민들은 쇠약해졌으며 온갖 들짐승과 바다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맛 좋은' 과일을 또다시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는 세상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짐승

3년 가까이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짐승에 의해 전파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이 들짐승의 서식처를 파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때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마가복음 1:13)

이사야 43장 19-20절은 다시 올 정의와 공평의 새날을 예고하는데 이때가 되면 사막에 강이 흘러(-다시는 어렵게 길어온 물을 누군가 독점하지 못하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

하는 때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43:19-20)

들짐승들의 공경을 받으며 지내던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지막 시험은 또다시 세상을 독점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마4:9)

예수께서는 유혹을 이기셨고 이 땅의 불평등한 구조에 온몸을 던져 맞서셨습니다. 특정한 누가 아니라 이 땅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꿈꿀 수 있는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 떼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레위기 26:22)

코로나 이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누구라도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로에게 달콤한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본래 이 땅의 자연과 들짐승들은 불평등한 이집트에 대항하던 저항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어렵사리 길어온 물을 독점하던 이들을 심판할 때에 자연과 들짐승이 함께 대들어 해방을 완성했습니다. 해방의 동지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들짐승을 통한 인류의 고난은 그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의 동지들이 우정으로 전하는 경고에 속히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기후정의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코로나 초기,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이 오랜만에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우리의 기술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또다시 맹신하며 잠시 멈췄던 걸음을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생명이 달린 백신과 치료제마저도 불평등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위기나 기후재앙 등의 말 대신 〈기후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 혹은 국가에 의한 여러 독점이 기후위기를 가속시켜 왔고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약소한 개인이나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내린 폭우에 반 지하에 살던 삶에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것이 그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 받을 수 있고, 내가 반 지하에 살지 않는다고 이 재앙이 언제까지나 비켜갈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독점을 통해 이웃에게 재앙을 미루는 자들의 심판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5:8)

오래된 미래

"우리가 그거 맹 들어강 다 따블면, 후세에는 뭘 딸거라?"

해녀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전하는 말입니다. 또 해녀들의 작업에는 몇 가지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숨이 긴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가야 합니다.(*숨의 길이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 해녀로 나눠지며 작업하는 바다가 철저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숨의 길이는 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한다.) 둘째는 물질에 나선 해녀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도 바다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된 숨 따라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좀 적게 얻어 내지만 그 누구도 바다를 독점하지 않으며 오늘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허락된 은총의 바다를 대하는 정의와 공평의 법칙이자 지혜입니다.

이제 특정한 이들만 독점하는 '맛 좋은 과일'을 위해 폭주하는 시대는 멈춰야 합니다. 맛 좋은 과일이 넘쳐나면 우리도 언젠가 그 과일을 나눠 먹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으며 바벨탑 쌓는 어리석은 일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여 지는 공평과 정의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인데(누가복음 3:5-6) 그때를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 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에스겔 34:25-28)

모두가 온전한 기후를 통해 공평해지는 날을 위해 우리가 적극 나설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첫째 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저희 인간들은 그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수많은 이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편리함, 문명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 화석연료 남용과 온실가스 급증으로 인해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주신 자연이 파괴되어 세계 곳곳에 폭염, 혹한,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열대성 폭우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온 이상 현상으로 인해 예수께서 몸소 사랑을 베푸셨던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힘쓰는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인간의 행위로 창조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 인간의 행위로 기후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만희 사령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둘째 날

기후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생명들의 주님, 작은 나라에나 큰 나라에나, 큰 사람에게나 작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만큼의 땅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지구 저편 아프리카 모리타니의 한 아이는 흙먼지, 모래폭풍, 흙이 타들어가는 가뭄에 배를 곯고 있습니다. 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세간살이를 허탈하게 바라보는 아이 업은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다. 태평양 키리바시의 어부는 집 앞까지 들이친 바닷물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물 부족과 해수면 상승 등 각종 자연재해로 생활이 피폐해지고 생존에까지 위협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더 적게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하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기후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구는 하나님 손바닥에 구를 정도로 작은데 우리는 지구촌 한 편에 있는 기후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창조 세계의 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기후변화의 여파로 발생하는 기후난민들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기후변화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기후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삶의 자리 한 켠을 그들을 향한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내어놓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며 따뜻한 인류애 속에서 주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홍철 목사
한아봉사회 사무총장

셋째 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하느님이 날마다 이루신 창조는 다양성의 역사이며, 다양성의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이루어 가신 생물의 다양함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자 하신 하느님의 지휘이며 신비입니다. 생물은 생물의 다름으로 살아 숨 쉬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보호합니다. 다름은 공생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며 자기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불충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무수히 많은 생물을 멸종시켰나이다.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 벵갈 호랑이, 아프리카 치타, 자이언트 판다, 바다거북, 산호초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 멸종을 막게 하시고 우리가 각 생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느님의 창조의 오묘한 신비, 다름으로 완성한 창조의 역사를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이루신 창조를 오늘도 이어가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쁜이 사제
대한성공회 원주교회

넷째 날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생명 세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탐욕적인 개발을 일삼음으로써 기후 위기와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함으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급기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직면하고 있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저 내려주시는 햇빛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숨 쉬게 하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이용하기로 한 'RE 100'을 선도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기술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속히 건설되게 도와주셔서 단시일 안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탄소제로 사회를 앞당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각 나라마다 무너지고 상한 땅과 열방을 고쳐주옵소서.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져주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상사태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닥친 위기와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상상력을 허락해 주시사,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적 시민운동이 힘차게 전개되게 하옵소서.

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기양 목사
울산새생명교회

다섯째 날

정의로운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관광자원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은 산을 파헤치고 레일을 깔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기후변화를 더욱 촉진할 뿐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이런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별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주님,

많은 정부 예산에 시민사회의 정성이 더해진 복원사업을 통해 겨우 우리 곁에 돌아온 반달곰을 비롯해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살아 온 생명들을 무시한 채 산림자원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중단하게 하소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소서.

노재화 목사
산들교회, 지리산종교연대 사무처장

여섯째 날

기후재난 속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탐욕이 빚은 결과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괴된 기후가 불러온 재난은 마치 우리의 체제와 닮아서, 약한 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난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적은 임금의 노동을 지속하며,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아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집니다. 어떤 소녀들은 땔감과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폭력의 위험 속에서도 먼 길을 떠나야만 하고, 몇 푼의 돈을 위해 결혼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갑자기 덮쳐오는 기후재난 속에서 어찌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주변을 돌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정의가 만든 기후재난은 사회의 낮은 곳을 침수시켰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이제는 차오르는 물을 피해 높은 곳으로 더 이상 도망만 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딛고 있는 악한 구조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돌이킬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폭우 속 반지하에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에스더 간사
한국YWCA 연합회

일곱째 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삶이 기록된 터전, 울고 웃던 생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이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탓입니다. 지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을 낙관하고 오용했던 탓입니다. 사랑이 탐욕으로, 욕망으로, 정복으로 변해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후 위기의 현실을 엄중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과 근본적인 가치관, 그 모든 영역이 전환되는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 지구에 터 잡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지속 가능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대안들을 용기 있게 실천하며, 추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후정의의 길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기후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지구의 모든 생명 앞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창조의 세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신음하는 피조물을 보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동료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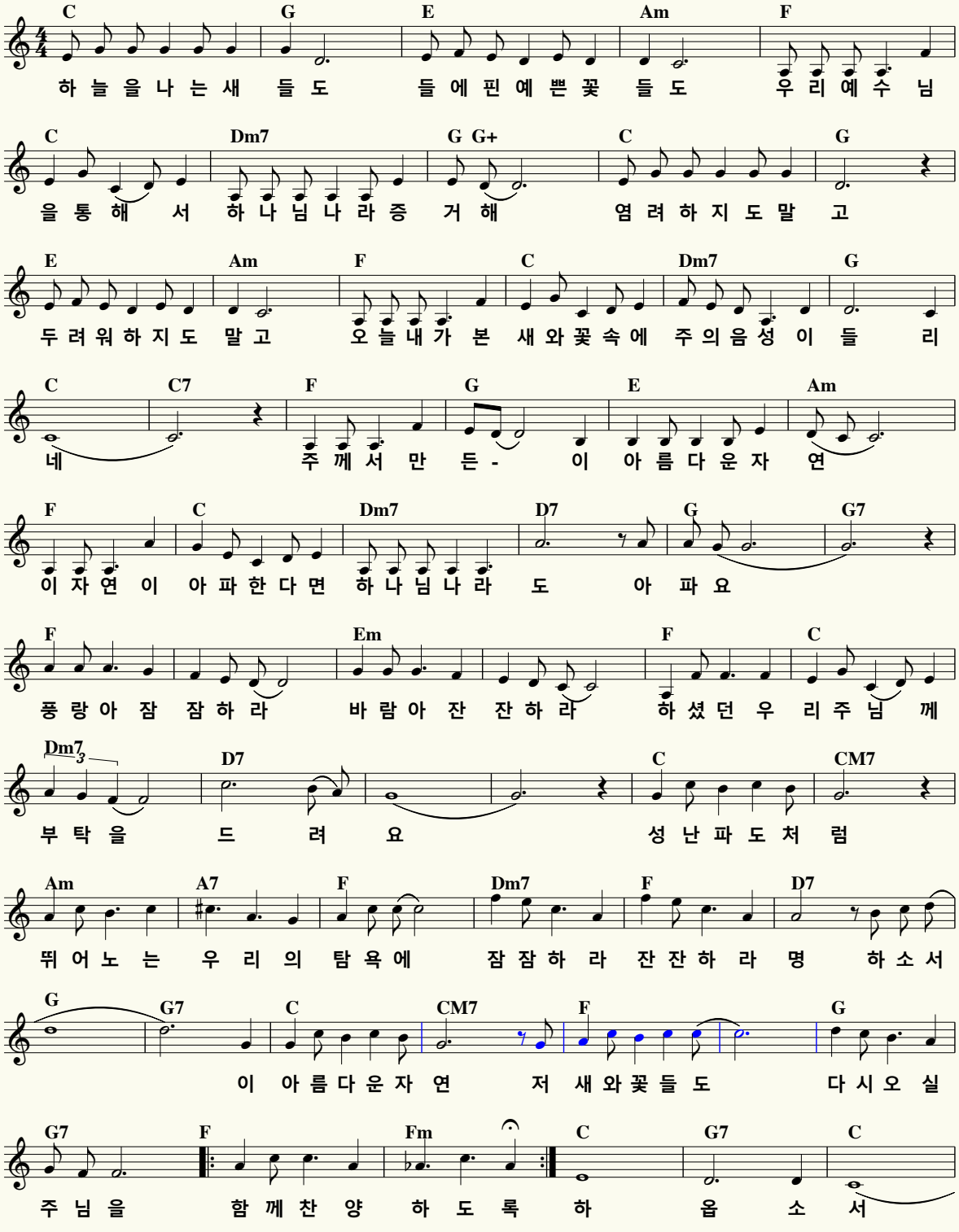
오늘 드린 이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뭇 생명을 평화와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성웅 목사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2021년 한국교회 탄소중립 실천 컨텐츠 공모전 노래 부문 대상 작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사.곡 김형수



Copyright © 2021 순복음한사랑교회
All Rights Reserved

9월 기후정의행동

| 기후정의 주간 | 9.19(월) - 23(금)
www.action4climatejustice.kr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부문별 행사 정보를 확인하세요!

9.24 기후정의행진

2022.9.24.(토) 오후3시
서울 광화문 일대

924 기후정의행진의 재정 마련을 위해
1만명의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추진위원 참여하기 ▶ bit.ly/924추진위원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2-765-1136
-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02-711-8905
- www.greenchrist.org